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2.15(금) ~ 2023.12.21(목)

제공일시 2023 12 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2.15(금) ~ 2023.12.21(목)

제공일시 2023 12 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美, 탄소 배출량 줄인 항공유에 세액공제... 국내 정유 업계 타격 가능성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유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 관련 세부 규정을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항공유(SAF)에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힘
- IRA에 따르면, 석유로 만든 항공유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줄이면 1갤런당 1.25달러(약1631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함. 절반 이상을 감축했을 때는 1%마다 0.01달러(약 13원)가 추가돼 최대 1.75달러(약 2283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 같은 결정은 한국 정유 산업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큼. 미국 항공업계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지속 가능한 항공유 비중을 늘리면 한국산 항공유의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항공유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조선일보 2023.12.16) 이병철 기자

2. 신차 팔기 어려워진다. EU, 배기가스·배터리 규제 '유로7' 2030년 7월 시행

-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 시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환경 규제인 '유로7' 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배기가스 외에 자동차 운행시 브레이크와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입자상의 물질과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 내구성에 관한 최저 성능 요건도 포함되는 등 신차에 대한 규제가 한층 까다로워짐
- EU는 회원국들의 정식 승인절차를 거쳐 승용차는 2030년 7월, 버스와 트럭은 2031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버스와 트럭은 질소산화물(NOx)의 배출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의 배터리 성능은 주행 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10만km 시점에서 용량 유지율 80% 기준을 설정했음

(M투데이 2023.12.19) 이상원 기자

3. 덴마크, 2025년부터 항공여객 녹색세 도입

- 덴마크 정부는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항공산업의 친환경 관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 승객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가 밝힘
- 정부는 11월, 2030년까지 모든 국내 항공편이 100% 지속 가능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전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여행에 평균 100덴마크크라운(약 1만8712원)의 세금 부과를 제안했음
- 합의에 따라 2030년까지 유럽 내 항공편의 경우 승객 1인당 50덴마크크라운(약 9584원의 세금을 낼 전망이다. 환승 항공편은 제외됨

(로이터통신 2023.12.15) 루이즈 브리시 라스무센 기자

4. 영국도 2027년부터 '탄소세' 도입

- 영국이 2027년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일부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 기후 규제가 자국보다 덜 엄격한 국가들에서 값싼 제품이 수입돼 자국 기업이 경쟁력을 잃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임
- 18일 영국 재무부는 영국에 수입되는 철과 철강, 알루미늄, 비료,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 일부 탄소 배출 집약적 상품이 2027년부터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성명을 통해 밝힘
- 세부적인 규정 등은 향후 추가로 결정될 예정임

(한국경제 2023.12.19) 노유정 기자

1. 정부, 6차 수소경제위 개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수소 소부장 육성/국내 최초 ‘액화 수소 검사지원 센터’ 첫 삽

- 정부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수소차 보급 확대 △국가수소중점연구실 운영을 공식화했음
- 수소경제위는 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나섬. 2022년 40%에 불과한 소부장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고, 글로벌 수소 소부장기업 20개를 육성할 계획임
- 또, 액화수소 민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액화수소 검사지원 센터’가 첫 삽을 떴음
- 센터는 액화수소 저장탱크의 진공단열검사, 안전밸브·긴급차단밸브 등 밸브류의 극저온 작동상태 검사 등을 수행하며, 향후 확대될 액화수소 시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됨

(데일리한국 2023.12.19) 안희민 기자

(이투뉴스 2023.12.19) 채제윤 기자

2. 2030 탄소제로 선박 상용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을 발표했음. 로드맵은 △탄소중립 선박 △제로에너지 건물 △태양광 3개 분야의 세부 목표를 담았음
- 탄소중립 선박 분야는 메탄올 등 저탄소 연료, 암모니아·수소 같은 무탄소 연료를 사용해 화석연료 내 연기관 대비 탄소 저감률이 최대 90%에 달하도록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임. 전기추진 선박에 사용할 선박용 연료전지와 배터리 기술도 연구함
- 제로에너지 건물 분야에서는 단열·조명·차양용 친환경 저탄소 신소재 개발을 지원함
- 태양광의 경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전지를 상용화해 태양광-전기 변환 효율을 36% 이상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국경제 2023.12.19) 김진원 기자

3. 중기부,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전환에 2180억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2180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하는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 우선,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통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DX)을 적극 추진함
- 제조데이터 표준화, 분석 활성화를 통해 제조데이터 활용 기반도 확충함
- 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로봇 보급사업에 중복지원을 허용해 기업의 필요에 따라 사업의 동시 진행을 가능하게 함

(이투데이 2023.12.14) 조남호 기자

4. 금융위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제출해야”

- 내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함
-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가 시행된다고 밝혔음. 1단계는 2024년~2025년까지 진행되며, 2단계는 2026년부터 시행됨. 영문 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됨
- 2024년부터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임. 제출해야 하는 공시 사항은 현금, 현물 배당 결정 등 결산 관련 사항, 유·무상증자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임

(디지털투데이 2023.12.18) 강주현 기자

1. [단독]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도 ‘테슬라 슈퍼차저’ 도입

- 폭스바겐그룹(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이 테슬라 전용 충전기 연결 방식(NACS·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채택 대열에 합류함
-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NACS를 충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글로벌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영향력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임
- 20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그룹은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NACS 규격 충전 포트를 적용한 신차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임

(더구루 2023.12.20) 윤진웅 기자

2. 타타스틸-임페리얼, 탈탄소 철강 제조혁신 센터 설립

- 다국적 철강제조업체인 타타스틸이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 가능한 설계 및 제조혁신 센터를 설립함
- 이 센터는 철강 생산과정에서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조공정 개발에 나설 계획임
- 센터는 1천만파운드(약 16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됨. 새로운 종류의 철강 및 기타 신소재, 다른 소재와 결합된 철강을 통해 자동차 및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고성능의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을 해 나갈 방침

(글로벌이코노믹 2023.12.14) 김진영 기자

3. TSMC 일본 파운드리 투자 판 커진다, 반도체 공급망 ‘리쇼어링’ 주도

- TSMC와 소니 합작법인이 일본 파운드리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핵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해 일본의 반도체산업 재건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음
- TSMC가 구마모토에 반도체공장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일본을 차세대 주요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음
- 15일 닛케이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TSMC와 소니, 자동차 부품업체 덴소의 합작법인 JASM은 일본 반도체 업계 전반의 ‘리쇼어링’을 중요한 목표로 강조하고 있음. 그동안 해외 기업을 주요 고객 기반으로 삼고 있던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관련 기업들이 다시 내수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임

(비즈니스포스트 2023.12.15) 김용원 기자

4. 중국 CATL 이어 니오 ‘반고체 배터리’ 공개, 1번 충전으로 1044km 주행 시연

- 중국 전기차기업인 니오가 상용화를 앞둔 반고체 배터리를 차량에 탑재해 1천km가 넘는 주행거리를 시연함
- 다른 중국 배터리기업인 CATL(닝더스다이)은 이미 지난 4월 반고체 배터리를 출시했음
- 니오가 사용한 반고체 배터리는 테슬라 차량에 사용되는 최신 배터리셀보다 에너지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

(비즈니스포스트 2023.12.19) 이근호 기자

5. 페라리·PMI, 탄소중립 위해 파트너십 체결

- 페라리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과 탄소중립을 위한 솔루션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힘
- 페라리 E 랩과 PMI는 두 회사의 기술적 역량을 모아 새로운 에너지 관련 기술을 연구할 예정임
- 이 기술을 통해 양사는 각각 마라넬로와 그레스펠라노에 위치한 페라리와 PMI 생산 시설의 탈탄소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임

(핀포인트뉴스 2023.12.14) 김수현 기자

1. LG엔솔-스텔란티스 加 배터리 합작공장 구축 시작/LG엔솔, 리튬메탈 배터리 기술 확보… 차세대 배터리 시장 지배력 강화

-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인 넥스트스타에너지가 캐나다에 짓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장비 발주가 본격화됐음
- 17일 업계에 따르면, 넥스트스타에너지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구축하는 배터리 공장 장비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매주문(PO)을 내고 있음. 이차전지 노칭장비 업체 디이엔티가 317억원 규모로 넥스공급 계약을 맺었으며, 에이프로도 612억원 규모 이차전지 활성화장비 공급계약했음. 조립공정 장비업체 나인테크는 최근 LG전자와 맺은 3건의 공급계약 공시를 냈는데, 이 중 일부가 넥스트스타에너지 공장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리튬메탈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고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배터리의 제품군 중에서 리튬황 배터리를 가장 먼저 상용화할 예정임

(전자신문 2023.12.17) 정현정 기자
(CEO스코어데일리 2023.12.19) 박대한 기자

2. SK에코플랜트, 기업 탄소 배출량 측정·관리 서비스 출시

- SK에코플랜트가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탄소 관리 서비스를 공식 론칭했음. SK에코플랜트는 20일 '웨이블 디카본(WAYBLE decarbon)'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음
- 웨이블 디카본은 탄소 배출량 측정부터 실제 감축 방안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임
- 대쉬보드 화면을 통해 사업장별 탄소배출량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음. 기업의 사업 성격에 따라 서비스를 모듈화해 선택적 적용도 가능하며, 스코프 1~3에 해당하는 모든 탄소배출 측정 외 용수, 폐기물 등 환경데이터 관리를 도움

(한성경제 2023.12.20) 문용균 기자
(노컷뉴스 2023.12.20) 김수영 기자

3. 현대차, 하이브리드차 LFP 배터리 개발 나섰다/현대차, 내년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산 3.5배 늘린다

- 현대자동차가 이르면 2026년 완료 목표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에 착수함. 하이브리드차 주요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배터리를 자체 개발해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임
- 한편, 현대자동차가 내년 인도네시아 공장(HMMI) 전기차 생산량을 크게 확대함
- 아이오닉5 등 올해 전기차 예상 판매량을 고려할 때 내년 현지 수요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함. 특히, 내년 전기차 생산 라인업에 코나EV 등 신규 전기차 2종을 추가하기 위한 수순임

(전자신문 2023.12.18) 김지용 기자
(더구루 2023.12.18) 윤진용 기자

4. 포스코, 리튬 생산 핵심부품 국내 최초 국산화 성공

-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강소기업과 리튬 생산공정 핵심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했음. 포스코홀딩스는 더블유스코프코리아(WSK)와 함께 2021년부터 전기투석막 공동 개발에 착수해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음
- 양사는 이날 오전 충북 오창 WSK 1공장에서 '리튬 생산용 전기투석막 공동개발 및 국산화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음
- 향후 수산화리튬 공장의 주요 부품인 전기투석막 및 관련 장비의 국산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함. 양사는 오는 2024년부터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상용화 공장에 적용할 예정임

(뉴스스 2023.12.14) 김동현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12.15(금) ~ 2023.12.21(목)

제공일시 2023.12.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유럽 7개국, 2035년까지 전력 시스템의 탈탄소화 약속

(임팩트는 2023.12.20) 홍명표 기자

- EU의 7개 국가들이 2035년까지 전력망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제거하기로 약속했음
- 로이터, 블룸버그는 EU회원국 가운데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EU회원국이 아닌 스위스 등 7개 국가들이 2035년까지 전력 시스템에서 CO2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제거하기로 약속했다고 18일(현지 시각) 보도했음
- 성명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PELF포럼(Pentalateral Energy Forum)'의 일환으로 2035년 계획에 서명했음. 이 포럼은 2005년에 참가국 전체의 전력 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결성됐음
- 블룸버그에 의하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도 동의한 이 목표는 다른 EU회원국들이 목표연도로 제시한 2040년보다 5년이 빠름
- 7개국은 EU의 목표보다 더 빠른 목표를 제시하여, 대량의 저탄소 전력을 네트워크에 통합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충분한 전력망과 에너지 저장소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공동으로 계획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 네덜란드 임시 에너지 장관 롬 제텐은 "EU 전체 전력 수요의 약 50%가 참여국의 권역에서 발생한다"며, "유럽 북서부의 완전 통합 전력 시장은 EU의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함
- 유럽 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의 데이터에 의하면, EU는 2022년에 전력의 41%를 재생 에너지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전력 발전의 탄소 집약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크게 발생했음
- 영국에 본부를 두고 석탄 사용 감축 운동을 벌이는 싱크탱크 엠버(Ember)에 의하면, 유럽 전역이 2035년까지 전력 부분의 대부분을 탈탄소화하는 게 가능하며, 풍력과 태양광은 그때까지 전력의 80%까지 생산하고, 석탄과 가스 전력은 대부분 제거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이 목표가 달성되려면 재생 에너지와 전력망에 최대 7500억유로(약 1073조원)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싱크탱크 엠버는 2035년까지 국가들은 화석 연료에 대한 청구서가 많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예측보다는 전반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